

국어 교육에서의 ‘비판적 사고’ 프로그램의 활용성 연구

김윤정*

|| 차례 ||

- I. 서론
- II. ‘비판적 사고’의 모형과 의의
 - 1. ‘비판적 사고’의 모형
 - 2. ‘비판적 사고’와 국어 교육의 상관성
- III. ‘비판적 사고’를 적용한 국어 교육 프로그램
 - 1. 읽기자료의 모색
 - 2. 읽기와 쓰기의 통합적 국어 교육
- IV. 결론

【국문초록】

어떠한 사실이나 현상에 관에 진위와 가치여부를 따지면서 사고한다는 점에서 비판적 사고는 정보화 사회의 필수적인 사고 방법이 된다. 정보가 홍수처럼 범람하는 이 시대에 올바른 정보와 그른 정보를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은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에 의해 서구에서는 이를 프로그램화하여 교육에 도입하고 있다. 9요소-9기준으로 체계화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는 그러나 국어 교육의 목적 및 본질과 일치하면서도 그 도식성에 의해 국어 교육 영역에서 경원시된 것이 사실이다. 또한 비판적사고 프로그램은 글쓰기 프로그램과 서로 상충한다는 견해에 의해 사고의 영역으로 국한된 채 소개되어 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비판적 사고는 사고의 기본적인 유형이자 국어 교육의 과정중심적, 구성주의적 성격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사고력 함양이라는 국어 교육의 실질적 목표 실현을 위한

* 강릉원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일 방법을 제공한다. 프로그램화된 비판적 사고를 학습하고 훈련할 경우 우리는 어떤 사태에 대해 보다 체계성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비판적 사고는 시사적인 문제에서부터 다양한 영역의 텍스트 및 현상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전 영역에서 요구되는 사고의 태도이자 방법인 것이다.

이 점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곧 국어 및 글쓰기 교육이다. 비판적 사고는 다양한 텍스트를 통해 글읽기 연습이 가능하고, 또한 정보를 생산하게 되는 글쓰기 교육에서 효과적으로 적용, 활용될 수 있다. 비판적 사고는 읽기와 쓰기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글쓰기교육에서 활용될 때 더욱 큰 의미를 발휘할 수 있다. 읽기 자료를 통해 비판적 사고를 훈련했을 경우 글쓰기는 더욱 성찰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 구조로 이루어질 수 있다. 글쓰기는 비판적 사고를 적용함으로써 정보화 사회에서 유용한 설득적이고 타당한 글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점이다.

주제어 : 대학 국어, 글쓰기, 비판적 사고, 읽기자료, 공동체, 정보생산, 사고력

I. 서론

정보가 자본이 되고 권력이 되는, 소위 정보화 시대인 오늘날 모든 개인들은 자신의 정보를 통해 자신의 생산성을 입증하고 또 그것으로 세계와 경쟁해야 된다는 조건 속에 놓이게 되었다. 각 개인은 지식 생산의 기술자이자 노동자이고 지식 상품의 기획자이자 판매자로서의 역할을 떠맡아야 한다. 개개인들은 보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산출하여 이를 적합한 형식으로 구성하고 이것이 시장 속에서 고부가가치의 상품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기획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지식이 소수 예외적 인물들에 의해 독점적으로 생산되며, 따라서 이것이 절대적인 권위를 행사하던 과거와 상황이 매우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소수의 특권적인 엘리트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지식의 생산자의 역할을 지니고 되는 정보화 사회 속에서는 과거와 같이 지식을 에워싸던 권위

는 사라지게 된다. 개개인이 창출한 지식은 그 어떤 권력의 맥락에 의해서가 아닌 오직 정보의 질과 효용성에 의해 가치가 매겨진다. 이것은 새로 도래한 민주주의이자 새로운 권력을 예기하는 지형도이다.

이러한 정보화 사회에의 진입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 대학은 물론이고 초·중등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이러한 무한 경쟁의 정보화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고 주도적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부심하고 있다. 오늘의 교육은 학생들을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인물로 양성해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게 된 것이다. 이제 학생들은 과거의 교육에서처럼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고 수동적으로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자기주도적으로 소화·재구성하고 나아가 이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 형성으로 이어가야 한다.¹⁾

이러한 가운데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되는 과목이 국어이고 글쓰기 교육이다. 단순히 생산된 지식을 제공하게 되는 여타의 과목과 달리 국어 및 글쓰기 교육은 다양한 성질의 텍스트 읽기 및 다양한 형태의 쓰기에 관여함에 따라 지식 생산 과정에 대해 본격적으로 탐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²⁾ 특히 국어 교육에서의 읽기 및 글쓰기 훈련은 주어진 지식을 복합적

1) 주어진 정보의 수동적 습득과 수용이 아니라 이를 창조적으로 재구성, 능동적 활용을 강조하는 오늘날의 교육 패러다임은 과거 '객관주의'와 구별되는 '구성주의' 교육 철학의 입장 위에 놓여 있다. 구성주의 교육 철학은 지식은 교수자로부터 학습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라는 관점을 견지한다. 즉 지식은 고정적이고 초역사적인 것이 아니라 학습자 개인의 사회적 경험 및 인지적 특성에 따라 각 개별 상황에서 구성되고 생산되는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구성주의 교육 철학은 오늘날 국어 교육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에 고르게 적용되고 있다. 구성주의 교육 철학에 관하여는 이재승, 『국어교육의 원리와 방법』(박이정, 1997) 참조.

2) 현재 중등교육 과정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어 교육은 크게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국어지식, 문학 등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은 언어 사용 형태에 관련된 부분이고, '국어 지식'은 언어 자체에 대한 개념적(문법적) 지식과, 언어 사용에 대한 절차적 지식, 즉 언어 사용 4개 형태에 관한 방법적 지식 두 부분을 포함한다. '문학' 영역은 국어 교육에서 비문학적 언어와 함께 언어

이고 다양한 층위에서 분석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주며 또한 자신의 지식 생산에 있어서도 전략적으로 행하게 함으로써 주체들의 자기주도적이고 창조적인 지식 활동에 직접적인 기여를 한다. 국어 및 글쓰기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주어진 지식들을 자기화하고 나아가 자신의 지식을 정보화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국어 및 글쓰기 교육은 정보를 다루고 이를 상품화하는, 그러한 지식을 제공하는 과목이 된다. 이 점에서 국어 및 글쓰기 교육은 정보로 구성되는 모든 여타 학문을 관통하는 학제적 과목이자 학문에 대해 탐구하는 메타(meta) 학문³⁾이라 할 수 있다.

국어 및 글쓰기 교육이 정보 생산 양상을 탐구함으로써 학제적 과목이자 메타 학문의 성격을 띤다는 것은 이들 교육이 더욱 근본적으로 사고와 표현을 주요 학습의 범주로 설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모든 지식과 정보는 인간의 사고 활동에 의해 구성되고 인간의 표현에 의해 생산 유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사고는 정보의 내용과 질을 결정하고 또한 그것이 효과적으로 표현될 때 정보가 고부가가치의 상품으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국어 및 글쓰기 교육이 흔히 ‘사고와 표현’이라는

사용 성질에 따른 분류의 한 영역을 차지한다. 크게 이들 6개 영역을 바탕으로 국어 교육은 총체적 언어 사용의 방법적 지식을 탐구하고, 아울러 관련 학문 분야의 내용적 지식을 바탕으로 사고력 증진 교육을 꾀하게 된다. 이는 국어 교육의 본질이 언어 기술 향상이라는 도구적 성격과 지식의 창조적 구성이라는 사고력 함양 양면에 놓여 있음을 말해준다. 국어교육의 성격과 원리에 관하여는 심재원, 구동언 편저, 『국어과 교육론』(참교육과 미래, 2009, pp.16~19) 참조.

- 3) 심재원은 국어과 교육의 특성을 크게 도구 교과로서의 특성, 내용 교과로서의 특성, 사고 교과로서의 특성이라는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국어 교육이 단지 지식을 전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다루는 방법을 교육시킨다는 점과 관련되는데, 그것은 국어 교육이 읽고 쓸 줄 아는 문자 기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언어를 통해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에 친착함으로써, 여타 학문에서의 지식 습득 및 사고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가리키는 것이다. 국어 교육의 이러한 특성들은 여타 학문을 위한 방법적 기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어 과목을 학문에 대한 학문, 즉 메타 학문의 성격을 띠게 한다. 위의 책, pp.21~24.

이름으로 제시되는 것도 이와 관련된다.

이러한 점들을 살펴볼 때 오늘날 글쓰기 교육에서 '사고력'을 강조하는 근거를 짐작할 수 있게 된다. 훌륭한 사고력은 결국 가치있는 정보 생산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서의 가치있는 정보란 창조적인 지식, 수요자들에게 최대의 시혜가 되는 지식, 기존의 지식 체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지식이 될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가치를 지니는 정보가 되려면 무맥락 상태에서 던져지는, 즉 무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과의 관련 속에서 산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당대 및 사회, 그리고 기존 정보와의 맥락 속에서, 그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생산되어야 한다.⁴⁾ 즉 새로운 정보는 기존의 체계를 지양하는 동시에 이를 넘어선다는 관점을 가져야 된다. 가치있는 정보란 사회 및 역사적 맥락으로부터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및 동시대와의 대화적 관계 속에서 산출된다는 것이다.

이 점은 '사고력'의 증진에 있어서 가장 요구되는 것이 정보에 접근하는 '비판적' 태도임을 말해준다. 비판적 사고는 대상과 사태에 관해 다양한 맥락에서 다각도로 검토하면서 옳고 그름, 참과 거짓을 논하는 능동적 사고로서, 비판적 사고를 활용할 때 기존 정보 및 지식은 새롭게 가치있는 정보로 재구성, 생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⁵⁾ 비판적 사고는 주체에게 대상과 사

4) 구성주의에 입각한 국어 교육에서 지식은 재구성되는 것이자 능동적으로 생산된다는 점에서 지식 주체는 언제나 열린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본다. 주체는 자신의 경험과 인지 구조에만 관여할 것이 아니라 지식의 생산과 유통이라는 사회 구성적 측면에 대해서도 민감해야 한다. 이에 주체의 언어 활동은 일차적으로 의사소통적 관점을 취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사회적 맥락에 관한 비판적 창조적 관점을 지향해야 한다. 이때 지식에 관한 비판적 태도는 창조적 지식 생산을 위한 전제가 된다.

5) 비판적 사고는 사고의 방법에 관한 사고, 사고의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이다. 비판적 사고는 지식 기반 사회에서의 교육의 가장 기본적 틀이 되고 있지만 그 논의 및 형성은 매우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소위 소크라테스의 산파술에 뿌리가 닿아 있으며 지식의 상대주의와 회의주의를 강조했던 소피스트들, 로크, 흄스

태에 대한 비판적 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주체로 하여금 주어진 사태에 맹목적으로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사태를 조망하게 하고 타자와 대화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II. ‘비판적 사고’의 모형과 의의

대상이나 사태에 관해 여러 층위, 여러 측면에서 가치와 의미를 따지게 해줌으로써 이들에 대한 맹목적 태도를 경계하게 해주는 비판적 사고는 이미 서구에서는 사고력 증진 및 합리적 주체 형성을 위해 강조되고 훈련되어 왔다. 특히 오늘의 우리와 동일하게 대학에서 ‘글쓰기’ 교육 및 ‘사고와 표현’, ‘토론과 논술’ 등의 과목을 개설해오고 있는 미국의 경우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라는 일정한 사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들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⁶⁾ 이들에게 ‘비판적 사고’는 단순하게 ‘권장되는’ ‘덕목’이나

등의 경험주의자에게도 이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존 듀이는 비판적 사고의 ‘아버지’로서 간주된다. 듀이는 비판적 사고를 ‘반성적 사고(reflective thinking)’라 부르고, 그것을 “근거나 파급 효과에 비추어 믿음이나 지식을 능동적이고 끈질기며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라 정의한 바 있다. 듀이의 이러한 정의는 비판적 사고가 생각이나 정보를 무반성적으로 받아들이는 수동적 과정과 대비되는 것임을 말해준다. A. Fisher, 최원배 역, 『피셔의 비판적 사고』, 서광사, 2010, pp.14~15.

6) 피셔는 ‘비판적 사고’가 교육계의 유행어가 되었다고 표현한다. 피셔에 따르면 오늘날 교육학자들은 정보나 내용을 가르치는 것과 대비되는 ‘사고방법’을 가르치는 일에 더 관심을 보이는데, 이러한 경향은 여타 학문 내에서의 지식 교육은 사고 방법을 우회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지언정 사고 방법에 관한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교육은 되지 못하며, 이러한 간접적 사고 교육은 학생들에게 사고 방법을 터득하게 해주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판단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한다(위의 책, p.13). 피셔의 진술은 오늘날 사고력 함양을 위한 ‘비판적 사고’의 효용성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비판적 사고의 이러한 측면은 언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고력 향상 교육의 성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즉 사고력 함양이라는 국어 교육의 본질 및 성격을 염두에 둘 때 비판적 사고는 사고의 방법적 틀을 제공하는 일부분으로서 효과적으로

‘태도’가 아니라 유형화된 사고의 기법이자 습득해야 하는 필수 과목인 셈인데, 여기에는 ‘비판적 사고’가 저절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훈련과 연습에 의해 학습되고 연마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놓여 있다.⁷⁾ ‘비판적 사고’가 일정한 방법론과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것도 이와 관련된다. 마치 글쓰기가 반복에 의한 실천에 의해 실력이 향상되는 것처럼 ‘비판적 사고’ 역시 반복적으로 실천함으로써 획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을 보면 ‘비판적 사고’는 철학이라는 분과 학문에 의해 고안된 것이지만 이러한 제한된 영역을 넘어서서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방법적 도구이자 창조적 지식인이 갖추어야 하는 지적 프로그램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비판적 사고’의 모형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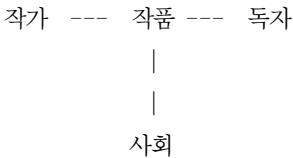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문자 언어로 쓰여진 텍스트는 그 성질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문학적 텍스트이고 다른 하나는 비문학적 텍스트

활용될 수 있다.

7) ‘비판적 사고’를 강조하고 이를 교육에 적용시키려 한 많은 이론가들 가운데 E. 글레이저와 R. 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에드워드 글레이저는 듀이의 개념을 발전시키면서 ‘논리적 탐구와 추론의 방법’이라고 부르는 것을 기술로 적용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발전시켰다. 그는 비판적 사고가 (1) 문제나 주제를 면밀하게 따져 보려는 성향, (2) 논리적 탐구와 추론의 방법에 관한 지식 (3) 이런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술이라고 규정하면서 비판적 사고의 범주와 기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리처드 폴 또한 이의 연장선상에서 “비판적 사고란 주제나 내용 혹은 문제와 상관없이, 사고에 내재해 있는 구조를 파악하고 그 구조에 지적 기준을 부과함으로써 자신의 사고 수준을 향상시키는 사고를 하는 사고방식”이라 함으로써 비판적 사고의 기법 및 방법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위의 책, p17)

8) 교육에서의 ‘모형’의 개발은 반복성과 규칙성을 유도함으로써 자칫 자유로운 사고를 방해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때문에 많은 교육자들은 기계적인 틀보다는 유연성과 창조성을 주장한다. 실제로 듣기, 읽기 등의 교육에서 주어진 정보에 대한 비판적 태도는 항상적으로 강조되고 시행되어왔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과학적으로 개발된 모형을 적용하는 일은 교육의 효과를 더욱 높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다.⁹⁾ 전지는 언어의 예술화된 형태로서 지성보다는 정서를, 사실보다는 허구를 지향하는 성질을 지닌다. 문학적 텍스트에서 진위보다는 미적 구조 및 미적 효과를 강조하는 것도 이와 관련된다. 때문에 문학적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텍스트의 내용의 참, 거짓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대신 문학적 텍스트에서는 일차적으로 텍스트에 구현되어 있는 내용, 형식의 구조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고, 나아가 텍스트를 둘러싼 맥락들, 작가 및 사회, 독자와의 관련성을 검토하게 된다.¹⁰⁾



문학적 텍스트를 이해할 때 우리는 흔히 이들 사이의 관련에 준거해서 질문을 하고 가치를 평가하게 된다. 가령 “작가가 이 작품을 쓰게 된 이유 및 배경은 무엇인가? 작가가 경험한 전기적 사실은 작품과 어떠한 관련을

9) 언어 사용의 방법과 언어를 통한 사고력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국어 교육에서 교육의 매체로 다루는 텍스트는 문학적 텍스트와 비문학적 텍스트 두 가지이다. 국어 교육에서 비문학적 텍스트 외에 문학적 텍스트를 비중있게 다루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문학 작품은 특히 읽기 교육에서 많은 배경지식을 요구하며 학생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비문학적 텍스트에 비해, 접근의 용이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용성이 평가된다. 다만 배경 지식보다는 경험에 바탕을 둔 공감적 이해를 요구하므로 문학작품의 이러한 성질에 준한 이해의 경로를 교육시키는 일이 요구된다 하겠다.

10) 문학텍스트에 대한 이해는 크게 내재적 분석과 외재적 분석으로 이루어진다. 내재적 분석은 텍스트 자체에 국한된 것이고, 후자는 작가, 독자, 사회라는 텍스트가 발생하게 된 주변 배경들과 관련시켜 논의하는 것이다. 작가, 독자, 사회는 텍스트가 처해있는 위치와 조건을 말해준다. 문학 작품에 대한 비평 이론들은 모두 이러한 틀 속에서 생산되는데, 이를 도식화한 이는 에이브람즈이다. M.H. 에이브람즈, 『비평이론의 좌표』, 『20세기 문학비평』, 까치, 1984, pp.15~49.

지니는가? 작가의 가치관 및 세계관은 무엇인가? 작품은 사회의 어떤 측면을 반영하고 있는가?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작품의 창작 방법상의 특징과 독창성은 무엇인가” 등이 그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문학적 텍스트를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교육자는 학습자로 하여금 텍스트의 구성 원리와 의의를 평가하도록 하고 작품의 발생 조건과 사회적 맥락을 검토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또한 텍스트의 객관적 조건들이 독자라는 학습자의 경험 및 인지 구조와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성찰하도록 안내해 줄 수 있다. 문학적 텍스트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학습자는 일차적으로 작품 자체에 대한 내재적 접근을 시도한 후, 작품을 둘러싼 후면의 조건들을 관련적으로 탐구하게 되는데,¹¹⁾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고는 흔히 나선형의 전개 과정을 보이게 됨을 알 수 있다.

문학적 텍스트에 관한 효과적인 이해의 방법이 텍스트를 구성하는 요소 및 조건을 고려한 일정한 모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비문학적 텍스트의 이해 역시 텍스트를 구성하는 성분 및 원리에 준거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의 면밀한 파악을 위해 문학적 텍스트를 이해할 때와 마찬가지로 세밀한 질문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문학적 텍스트에 적용할 수 있는 모형과 질문은 비문학적 텍스트에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것은 비문학적 텍스트의 문학 텍스트와의 성질의 차이에 기인한다. 즉 비문학적 텍스트는 문학적 텍스트와 달리 언어의 독특한 사용에 의한 미학적 형상화에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한 정보라든가 타당한 주장이라는 내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매개체이다. 이는 비문학적

11) 국어 교육에서는 주로 텍스트 자체에 대한 내용 이해에 주력하는 과정을 상향식 정보 처리 방법, 텍스트 주변 상황, 목적, 작가에 대한 사전 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을 하향식 정보 처리 방법이라 부른다(심재원, 앞의 책, p.62). 내재적이고 외재적 방법으로 유도되는 에이브럼스의 문학 작품 이해의 경로는 주어진 텍스트에 관한 정보 처리의 실제적 방법과 일치하되, 우리에게 보다 정교한 방법적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텍스트가 일차적으로 정보의 정확성과 주장의 타당성, 의도의 진실성, 구성의 논리성 등을 중요시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즉 비문학적 텍스트는 내용의 사실성, 정확성, 논리성 등이 가치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비문학적 텍스트는 우리가 학술적 글쓰기를 학습할 때 접하게 되는 텍스트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대학의 국어 교육에서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비문학적 텍스트란 문제시되는 사태에 대해 이해해야 할 때, 글쓰기를 위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 평가할 때,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논증의 형태로 제시할 때 접하게 되는 텍스트들이다. 대학의 글쓰기 수업에서 강조하게 되는 텍스트는 대부분 비문학적 텍스트인 것이다. 이러한 비문학적 텍스트의 이해를 위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비판적 사고’ 모형이다.¹²⁾

사고	비판적 사고			
	분석적 사고	추론적 사고	종합적 사고	대안적 사고
	분석	논증	변증	
9요소	문제, 개념, 정보	결론, 전제, 함축	목적, 관점, 맥락	
9기준	분명함, 정확성, 명료성	적절성, 중요성, 논리성	다각성, 심층성, 충분함	

12) 현재 ‘비판적 사고’와 관련하여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이론편자 중 하나인 리처드 폴은, 사고에 내재해 있는 구조를 파악하고 이에 지적 기준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던 자신의 주장에 따라 사고의 8가지 요소를 끌어내고 이들을 판단할 수 있는 8기준을 제시한다. 또한 리처드 폴이 체계화한 방법을 받아들인 김영정 교수는 이를 보완한 ‘9요소-9기준’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논술교육 분야에 적용코자 하였다. 김영정은 비판적 사고의 방법을 사고의 9요소(결론conclusion, 전제presupposition, 함축implication, 문제question at issue, 개념concept, 정보information, 목적purpose, 관점point of view, 맥락context)와 9기준(적절성relevance, 중요성importance, 논리성logicalness, 분명함clarity, 정확성accuracy, 명료성precision, 다각성breadth, 충분함sufficiency, 심층성depth)으로 구분하여 ‘9요소’는 텍스트에 대해 분석해야 할 내용으로, ‘9기준’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 평가할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R.Paul에 의해 창안된 '비판적 사고'의 프로그램에서 9요소는 층위별로 논증의 단계, 분석의 단계, 변증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¹³⁾ 논증의 단계는 텍스트 이해의 가장 기본적 단계로서 텍스트의 내용이 보여주고 있는 논리적 층위를 검토하는 단계에 해당된다. 곧 텍스트의 표면에 나타나 있는 주장(결론)과 논거(전제)를 살피는 것이 이 단계의 고찰인바, 숨겨진 전제를 포함하여 전제 전체로부터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추론 과정이 옳은가 그른가를 검토하게 된다. 지금까지 형식 논리학에서 다루었던 논리의 참, 거짓을 따지는 작업이 이 단계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분석의 단계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논리적 층위보다 근본적 층위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텍스트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식 및 이를 위해 도입한 방법적 개념이나 사용한 자료들에 대해 검토하는 작업과 관련된다.¹⁴⁾ 흔히 글쓰기를 시작할 때 제기하게 되는 문제와 이를 풀어가기 위해 끌어들이는 방법론이 이 층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마지막 층위는 변증의 단계로서 가장 근본적인 층위라 할 수 있다. 텍스트 내적 틀을 넘어서서 텍스트가 생산되게 된 배경을 검토하게 되는 것이 이 층위이다. 문학적 텍스트의 경우 텍스트를 둘러싼 외적 맥락에 비견될 수 있는 부분이 이 층위인데, 여기에서는 작가 및 독자에 대해 고려하게 된다. 가령 텍스트를 산출하게 된 목적이 무엇인가, 필자가 지닌 의도가 무엇인가, 필자가 지닌 관점 및 이념이 무엇인가, 또는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가치가 무엇인가를 이 층위에서 살펴 보게 되는 것이다.

13) 인용된 도식 및 '9요소-9기준'에 대한 설명은 김영정, 『비판적 사고의 9요소와 9기준』, 『도목』 53권 11호, 2005. 11, pp.217~225 참조.

14) 합리적 주체의 능동적 사고라는 공통점을 가지면서도 '비판적 사고'는, 합목적적이거나 수단 가치를 따지지 않는 '합리적 사고' 및 전제나 명제의 내용보다 추론의 규칙을 따르는 '논리적 사고' 등과 구별되어야 한다. 비판적 사고에서는 효율성이라든가 규칙성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전제나 명제의 진리성을 탐구한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방적인 자세를 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문학 텍스트에서 내포하게 되는 이러한 9요소들은 문학적 텍스트와 마찬가지로 내재적 측면과 외재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논증적 단계와 분석적 단계가 내재적 측면에 해당한다면 변증적 단계는 외재적 측면에 해당한다. 다만 문학적 텍스트에서는 문학적 구성 요소에 대한 분석 및 미적 효과에 의해 내재적 이해를 하게 된다면 비문학 텍스트에서는 논리성 및 문제해결성을 따짐으로써 내재적 이해를 하게 된다. 반면 외재적 측면에서처럼 필자 및 독자와의 관련을 따지는 지점을 보면 문학과 비문학 공히 저자의 관점 및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발생론적 거점을 가지게 되며 또한 독자와의 일정한 대화적 맥락 속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문학적 텍스트와 달리 비문학 텍스트에 대해서는 보다 비판적 태도를 적용하게 될 것이다. 문학적 텍스트가 단지 텍스트의 요소를 객관화시켜 분석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면 비문학 텍스트에서는 일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텍스트의 공과를 따지게 되기 때문이다. 가령 논증의 단계에서 적용하게 되는 ‘적절함, 중요성, 논리성’ 등의 기준, 분석의 단계에서 적용하게 되는 ‘분명함, 정확성, 명료성’ 등의 기준, 변증의 단계에서 적용하게 되는 ‘다각성, 충분성, 심층성’ 등의 기준은 단순하게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기 위해 적용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들 기준들을 통해 가령 논증의 단계에서는 텍스트의 추론이 적절한지, 결론이 중요한지, 사고가 논리적인지를 질문하게 된다. 또한 분석의 단계에서는 문제가 분명한지, 개념은 정확한지, 자료는 명료한지를, 변증의 단계에서는 목적이 다각적인지, 관점이 깊이있는지, 독자의 요구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되었는지를 질문하게 된다. 이러한 질문들을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텍스트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둔 채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비판적 사고'와 국어 교육의 상관성¹⁵⁾

'9요소-9기준'으로 이루어진 '비판적 사고' 프로그램은 기존의 형식논리학이 보여주었듯 논리의 참,거짓을 논하는 차원보다 보다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접근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비판적 사고는 정보의 표면적 층위를 벗어나 정보 생산의 기저 및 맥락에 대한 총체적 시야를 확보함으로써 기존의 '논리적 사고'보다 자기중심적으로 정보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판적 사고 프로그램은 '텍스트 이해'가 아닌, '글쓰기'와는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가? 글읽기가 글쓰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실제 글쓰는 과정에서도 비판적 사고가 적용될 수 있는가?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혹은 '비판적 사고'는 실제 글쓰기와는 시간적 간격을 둔 채 단순히 사고력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기능하는 것인가? '글쓰기'에는 비판적사고 프로그램과 구별되는 글쓰기 프로그램만이 유용한 것일까?

이와 같은 질문은 글쓰기 교육의 측면에서 볼 때 매우 근본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과연 글쓰기 교육의 목적이 무엇이고 글쓰기가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 비판적 사고와 글쓰기의 관련성을 묻는

15) 국어 교육에서 읽기의 방법은 일반적으로 5가지 영역과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지식영역, 이해영역, 분석영역, 종합영역, 평가영역이 그것이다. 앞의 4개 영역이 텍스트가 제공하는 정보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 기여한다면 평가영역은 텍스트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보여주는 부분으로서 텍스트의 가치나 목적, 수준 등을 검토하게 된다. 이때 학습자는 자료의 정확성이나 효과성, 경제성, 만족성, 내용의 적절성, 타당성, 표현의 정확성 효과성 등을 판단하고 이를 수용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에 관한 고차원적 사고를 하게 된다. 국어교육에서 이러한 접근은 특히 글의 일관성, 논리성 등의 내적 증거에 의한 판단과 독자와의 의사소통적 측면이라는 외적 증거에 의한 판단을 포함한다.(이재승, 앞의 책, pp.210~215) '비판적 사고 모델'은 읽기의 '평가영역'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사고를 유도하는 의의를 지닌다.

것은 글쓰기 교육의 위상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적 계기에 해당한다.

물론 글쓰기는 모든 정보 생산의 매체는 아니다. 표현도구가 문자언어인 글쓰기는 예를 들면 ‘C언어’를 사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든가 수학이나 과학의 공식, 음악이나 미술 등 예술적 정보 생산의 매체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말하기’는 문자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까닭에 글쓰기의 범주로 볼 수 없다. 그런데도 ‘말하기’는 글쓰기 교육의 일부이고 또한 글쓰기 교육은 모든 학문의 메타 학문이 된다. 이 점은 글쓰기 교육이 사고력과 관련된 학문으로서 정보화 시대와 관련된 위상을 부여받고 있음을 말해준다. 글쓰기 교육은 단지 글쓰는 기술을 익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력의 함양과 관련된 것으로서 기존 정보의 가치를 따지고 새로운 정보 생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컨대 글쓰기 교육에서 사고력 함양을 위한 훈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이다. 비판적 사고 프로그램에 의한 훈련이 고려되어야 할 지점도 이 부분이다.

글쓰기 교육이 사고력 증진의 과정이 될 수 있는 까닭은 글쓰기의 모든 과정 자체가 사고의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글쓰기만큼 사고력 함양에 도움을 주는 활동은 없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글쓰기는 주제를 설정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개요를 작성하는 집필 전(前) 과정은 물론이고 집필 과정에서의 논리적으로 논의하기, 문장쓰기, 어휘선택하기 모두 사고의 과정을 요구하게 된다. 그런데 이때 사고력 훈련을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어떤 주제를 설정하고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며 어떤 구조의 개요를 작성하게 되는지, 그리고 글의 논리성 등에는 큰 차이가 있게 된다. 사고력 훈련을 받은 경우, 특히 비판적 사고의 훈련을 받은 경우라면 자신이 쓰게 될 글에 대해 보다 성찰적이고 가치지향적으로 접근하게 될 것임은 물론이다. 비판적 사고에 훈련된 자는 자신의 글이 어떤 목적으로 쓰여지는 것이며 어떤 관점을 지니는 것인지, 독자의 요구에 반응하는 것인지, 의미있는 문제의식을 지니고 쓰여지는 것이며 자료는 이를 풀기 위한 것으로서 적절한 것인지, 논의는

논리적이고 주장은 중요한 것인지를 검토하면서 글을 쓰게 될 것이며, 그 결과는 의심할 여지없이 창조적이고 가치있는 정보 생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대학이라는 담화 공동체, 그리고 대학이 속해있는 전체 사회 공동체의 존재를 고려할 경우 글쓰는 주체는 항상적으로 비판적 사고를 유지한 채 글쓰기의 매 단계에서 내용을 선택적으로 구성하게 된다. 주로 글쓰는 주체의 실질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과정 중심의 글쓰기 교육에서 비판적 사고는 글쓰기의 창조성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과 기준을 제공한다고 할 것이다. 글쓰기 교육에서 비판적 사고 프로그램이 사고력 증진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을 이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쓰기 교육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비판적사고 훈련은 대학 구성원 사이에서의 대화의 장을 펼쳐주게 되며 동시에 구성원들 사이에서의 대화의 기술을 연마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비판적사고 훈련은 정보의 가치의 근거를 공동체에 두도록 함으로써 실천적이고 윤리적인 지식인을 양성하는 데 기여를 한다. 비판적사고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동료 구성원들과 더욱 활발한 대화를 하게 될 것이고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공동의 모색과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이러한 훈련은 텍스트읽기 및 글쓰기를 통해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인데, 텍스트와 유리된 사변적인 논리 학습은 단지 논리학에 해당할 뿐 실질적인 텍스트를 통해 이를 수 있는 총체적인 사고력 개발에는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Ⅲ. '비판적 사고'를 적용한 국어 교육 프로그램

오늘날의 소위 '글쓰기 교육'은 단순한 글쓰기의 기술과 기법에 초점이 놓인 것이 아니다. 글쓰기 교육은 정보화 시대를 주도적으로 살아가기 위

한 정보 생산의 주체라는 새로운 지식인, 새로운 인재 양성과 관련되는 것이다. 국어 교육에서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국어 지식, 문학의 전 영역을 통해 오늘의 시대에 부응하는 능동적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모색을 해야 한다. 이러한 국어 교육의 견지에 설 때 ‘비판적 사고’ 프로그램 역시 주어진 정보의 주체적 재구성과 조직, 나아가 새로운 정보의 창조적 구성을 위해 전략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 국어 교육에서는 비판적 사고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한 초인지 전략, 상위 전략을 개발해야 하는바, 이들 전략들은 오늘날과 같이 정보 생산이 경제력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시대에 주도적으로 적용해갈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고, 이 속에서 의미있는 의사소통을 이루게 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 읽기자료의 모색

글쓰기 교육에서 비판적 사고의 강조는 일차적으로 읽기자료의 모색으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다. 글읽기는 글쓰기의 기초이며, 다량의 좋은 글읽기는 글쓰기를 위한 연습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글읽기의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텍스트가 가진 복합적 층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해 비판적 시각으로 접근함으로써 텍스트를 총체적이고 다각도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이러한 작업이 교수의 일방적인 독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개개인의 입장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질 때 텍스트는 더욱 다각적이고 치밀하게 재구성될 것이다.

읽기 자료를 모색하는 일은 초·중등 과정의 국어 교육에서는 대단히 일반적인 활동이다. 국어 교재를 만드는 주체들은 여러 논의와 협의를 통해 효과적인 국어 교육을 위한 지문 선정에 고심하곤 한다. 국어 교재에 나오는 자료들은 대부분 숙고의 작업 끝에 선택된 것들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능동적 주체 양성과 언어 능력의 구성주의적 태도 함양에 교육 목적

을 두고 있는 7차 교육 과정에서 읽기 자료는 문학 작품에서부터 설명문, 기사, 찬평, 법률문 등의 실용문에 이르기까지의 폭넓은 매체를 통해 전체 사회, 문화, 시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텍스트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¹⁶⁾

중등 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어 교육의 실상을 보면 대학의 글쓰기 교육에서 역시 국어적 관점이 강조되어야 함을 이해할 수 있다. 국어 교육이 언어와 함께 발달하는 사고력 교육이라는 점에서 볼 때 학문의 탐구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대학에서 특히 국어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나아가 이는 대학에서의 글쓰기 교육 시 글읽기 자료 선정에 보다 적극적으로어야 한다는 점을 암시한다.¹⁷⁾ 텍스트는 비판적 사고의 관점에 의해 검토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인문학적 상상력과 공동체의 가치를 환기시킬 수 있는 글일 경우 적절할 것이다. 그러한 텍스트는 학생들에게 미래적 비전에 대해 사유하게 할 것이므로 학생들의 지적인 모험심을 자극할 수 있을 것이다.¹⁸⁾

이러한 관점에서 읽기 자료가 선정될 경우 교육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는 공동의 작업에 의해 텍스트에 대한 비판적 읽기를 행하고, 또한 읽기 후 활동으로서 창조적 쓰기를 행할 수 있다. 다음은 텍스트에 대한 비판적 읽기의 예에 해당하는 것으로, 리처드 폴의 프로그램을 적용할 경

16) 심재원, 앞의 책, pp.116~119.

17) 초중등 교육과정에서의 읽기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정기철의 『읽기 교육의 이론과 실제』(역락, 2000) 참조.

18)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최근 제기되고 있는 주장이 고전읽기의 중요성이다. 고전은 사유 및 학문의 원형이자 인류의 가장 고차원적 정신을 담고 있다는 것이 고전읽기 주장에 대한 논거가 된다. 그러나 고전을 국어 교육의 읽기 자료로 선정하는 데엔 면밀한 고찰이 요구된다. 일각에서는 고전이 제국주의의 팽창주의적 세계관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최악의 텍스트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듯이 비판적 관점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어떤 자료인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도 교육하는 일이 더욱 본질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우 보다 구조적이고 조직적으로 비판적 사고를 시도할 수 있음을 잘 보여 준다 하겠다.¹⁹⁾

현재를 인터넷과 SNS에 익숙한 스마트 세대라고 한다. 교육도 이러한 세대에 맞게 이른바 ‘스마트러닝’이라는 교육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스마트러닝(Smart Learning)이란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 누구나 수준별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말한다. 지금까지의 교육이 선생님이 학생에게 전달하는 주입식 교육이었다면 앞으로의 교육은 학생이 자기 주도로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게 진행되는 지능형 맞춤 수업이 될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스마트러닝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2015년까지 초·중·고 디지털 교과서 개발을 완료해 서책형 교과서와 병행 사용하는 안을 추진 중이며 온라인 수업 도입 학교 비율도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재는 온라인 기초 학력 진단을 도입하는 곳이 4개 시·도에 불과하지만 2015년에는 모든 시·도로 확대할 방침이다.

미래에 펼쳐질 스마트러닝은 어떤 모습일까? 스마트러닝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세종시의 한솔고등학교를 통해 미래의 스마트러닝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학교에서는 RFID시스템을 도입하여 교문에 들어서면 자동으로 등교 여부가 체크되어 부모님의 휴대폰으로 등교 메시지를 알려준다. 그리고 자신의 책상에 비치되어 있는 스마트패드를 켜면 학습이 시작되며 스마트 패드를 통해 선생님이 제공하는 필기 내용을 보거나 선생님이 제시한 문제를 풀어서 제출할 수도 있다. 또한 스마트 패드로 클래식 음악을 듣거나 피아노도 연주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

스마트러닝의 핵심은 학생과 교사이다. 특히 스마트러닝에서 교사는 학생과 대화와 토론을 통한 중계자 역할로 바뀌어야 한다. 인터넷 과다 사용 등 스마트러닝을 통한 역기능 또한 발생할 것이다. 예방 교육을 통해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스마트러닝은 예정된 미래가 됐다. 이미 스마트러닝의 상용 서비스를

19) 다음 인용 텍스트와 분석은 실제 교육 현장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읽기 교육 형태로써 제시되는 것이다.

시작했다. 지금은 수업 전에 스마트폰을 잠시 수거하고 있지만, 곧 펼쳐질 세상에서는 스마트폰도 주요한 수업교재가 될 것이다. “스마트폰을 꺼세요”라는 말이 수업을 알리는 신호가 될 미래가 너무 가깝게 있다.

안창현, 『패드 하나로 멀티학습』,〈한국교육직원신문〉, 2012. 3. 19)

인용글은 첨단 IT기기를 이용한 교실 환경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지금은 스마트폰이 수업에 방해가 되는 기기로 인식되고 있지만 머지 않아 그것이 수업의 도구가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수업방식은 물론 교육 패러다임 자체가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글의 관점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 글쓴이가 매우 환영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글쓴이는 스마트기기들이 수업에 이용되는 현상이 소통방식의 변화까지도 가져오는 미래적이고 실용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매우 고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글쓴이는 도래할 미래적 교실에 대한 비전을 독자들에게 긍정적 관점으로 전달하고 있다. 글쓴이가 이 글을 쓴 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에 대한 인식과 비전 제시에 있다.(목적)

스마트 기기가 교실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각 교실에 스마트기기를 설치한다는 점 외에도 몇 가지 선행 조건들이 준비되어야 한다(현안의제). 그것으로 먼저 교과서가 인쇄매체에서 전자매체로 바뀌어야 한다(전제). 교과서의 모든 내용은 CD에 입력되어 새로운 디지털 교과서로 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력진단도 모두 온라인으로 실행될 수 있어야 한다(전제).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판서로써가 아니라 스마트패드 속에 입력함으로써 학습의 정보를 제시해야 하고 시험문제도 그러한 방식으로 준비해야 한다(전제). 그리고 실제로 정부는 이를 위한 준비를 행해 나가고 있다(정보). 정부는 적극적으로 스마트러닝(개념)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글쓴이는 이러한 준비들이 갖추어진다면 교실의 IT화는 현실화될 수 있고(결론1), 이러한 현실이 지금까지의 교육의 병폐인 주입식 교육을 학생

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변화시킬 것이라 주장한다. 또한 그것은 교사와 학생 간의 대화와 토론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한다.(결론2-함축된 전제 : IT기기는 쌍방향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스스로 정보와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지금까지 텍스트가 지니고 있는 9요소의 측면을 중심으로 내용을 분석해 보았다. 텍스트는 비판적 사고 프로그램에서 제시하고 있는 논리적 층위와 분석적 층위, 변증적 층위를 모두 뚜렷하게 지니고 있다. 문제는 9기준에 따라 이를 어떻게 비판할 수 있는가이다.

텍스트를 읽은 후 먼저 텍스트를 통해 갖게 된 독자들의 생각이 어떠한가가 질문되어야 한다. 독자들 역시 글쓴이의 주장과 관점처럼 스마트러닝 시스템이 장밋빛 미래로 보이는가 하는 것이다. 과연 교실의 스마트 기기는 글쓴이의 주장처럼 현실화될 수 있고,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가능케 하고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인가? 스마트러닝화된 교실이 과연 미래적이고 실용적인 관점을 구가하겠는가? 글쓴이의 주장과 관점은 적절하고 중요하며 충분히 성찰된 깊이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해 많은 반론이 가능하다. 먼저 교육이란 학습자의 지적 능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대전제가 주어지게 마련인데, 과연 스마트러닝 시스템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시킬 수 있을까? 학습이란 어느 정도 일방적으로 진행되기 마련이 아닌가? 정보를 아는 자가 모르는 자에게 그것을 전달해야 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집중을 유도하고 중요한 사실과 그렇지 않은 사실 사이에 구별을 해주며 어떤 지점에서는 힘주어 강조도 해야 하는 방법을 거쳐야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교사의 이러한 지도에 따라 지식의 전수가 이루어지고 이 속에서 학생들의 지적 능력이 강화될 수 있다. 또한 학생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손쉬운 터치로 정보를 인식하기 보다 펜으로 힘주어 노트에 기록해가고 내용을 정리해 가는 과정에서 지식의 습득이 이루어지고 지적 능력이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위의 텍스

트가 제시한 새로운 교육 방식은 학습을 위한 대전제에 맞지 않으므로 결코 미래적이거나 효과적이지 않은 교육이 될 것이다. 물론 수업 중 스마트 기기를 통해 학습자 스스로 정보의 확대를 꾀할 수는 있다. 스마트 기기의 도움으로 학습자는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구함으로써 자기주도적으로 수업을 이끌어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경우에 따라 보조적으로 활용되어야 해야 하는 것이다. 진정한 자기주도성이란 학생들의 지적능력의 강화라는 조건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IT기기를 잘 사용하는 데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텍스트는 사태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성찰을 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마트러닝은 생각처럼 우리에게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단지 수업 도구들의 디지털화가 학생들을 스마트하게 해 줄 것이라는 사실은 환상에 불과하다.²⁰⁾

이러한 반론은 텍스트에 대한 비판적 접근에 의해 도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반론은 텍스트가 지닌 논증적 층위 및 변론적 층위에서 문제점을 끌어내어 반론에 따른 논거를 제시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텍스트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통해 독자는 타당한 듯 보이는 스마트러닝에 대해 재성찰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텍스트는 주장 및 관점의 측면에서만 비판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분석의 층위에서 역시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독자와의 관계라는 맥락적 측면에서 볼 때 제기 가능한 질문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즉 일방적인 자기 주장은 있으되 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충분한 논의를 소홀히 한

20) 실제로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미국의 한 학교에서는 교실에서 의도적으로 IT기기를 배제한 채 전통적인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하여 얼마전 뉴스에 보도된 바 있다. 이 점은 다른 학교들이 따르는 추세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는데 학교 관계자들에 의하면 실제로 쓰고 읽는 전통적인 교육 방식이 학습 효과 면에서 더욱 뛰어나다는 판단이다.

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가령 글쓰이는 스마트러닝의 역기능에 대해 의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드러내고 검토 논의하는 데에는 무관심했음을 알 수 있다.

주어진 텍스트에 대한 이러한 분석과 평가는 비판적 사고 프로그램에 의한 훈련의 과정 속에서 실시될 수 있다. 비판적 사고를 훈련함으로써 학생들은 텍스트가 지닌 여러 층위에 적극적으로 착목하여 허점을 발견하고 이를 자기중심적으로 비판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이러한 비판이 한 사람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들의 교환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텍스트는 더욱 풍부하게 이해될 수 있고 더욱 치밀하게 비판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각도로 접근된 비판을 통해 학생들은 우리가 처한 사회 및 시대에 대해 보다 반성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계기를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앞으로 바람직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 주체적이고 건강한 시야를 제공할 것임은 물론이다.

이처럼 읽기 자료로 선정될 수 있는 텍스트들은 건전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성찰적 관점을 제기하는 모든 범위의 것들이 될 것이다. 그것은 문화 및 교육, 사회, 과학, 예술, 철학 등 전분야에 걸친 것일 수 있고 인문학적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어야 한다. 초·중등 과정의 국어 교재가 그 시기의 필독서에 준해 읽기자료를 선정하는 것처럼 대학의 글쓰기 교재에서 역시 대학생들의 필독서를 준거로 하여 읽기자료를 모색할 수 있다. 혹은 현재 쟁론이 되는 사안처럼 생생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도 읽기자료로 적합하다. 신문의 칼럼이나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최신 버전의 책, 또는 학자들의 권위있는 글들의 한 조각도 훌륭한 읽기자료가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다양한 영역에 걸친 자료들이 인문학적 관점 아래 논의된다면 글쓰기 교육은 전공간의 학제적 기능 및 학문에 대한 메타적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다양한 전공을 지닌 학생들은 주어진 텍스트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공동체의 미래와 구성원으로

서의 소양을 함께 성찰하게 될 것이다. 비판적 사고 교육은 그것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학생들의 독해력, 사고력을 훈련시킴을 물론이고 학생들을 사회를 이끌어가는 건강하고 따뜻한 주체들,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자아들로 양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임을 알 수 있다.

2. 읽기와 쓰기의 통합적 국어교육²¹⁾

이렇게 실천한 사고 활동들은 글쓰기에서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까? 정보화 사회 속에서 주도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한 대학의 과정에서부터는 학생들은 정보의 소비자가 아닌 정보의 생산자로서의 역할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대학의 글쓰기 교육은 단지 주어진 정보를 습득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창출하도록 도모되어야 한다. 글쓰기 교육은 단순히 다른 과목들과 마찬가지로 지식과 정보를 전달받는 과목이 아니라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실질적인 실천을 제공해주는 메타학문인 것이다. 대학에서의 각 시험의 답안 구성에서부터 리포트 작성에 이르기까지, 나아가 개인 블로그의 글들이나 취업 후 각종 보고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소용이 되는 글쓰기는 학생들을 정보생산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실천의 장들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글쓰기에 임할 때에 비판적사고 프로그램은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그것은 지금까지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행해졌던 글쓰기의 절차 및 기술의 프로그램과 어떤 관계를 지니는가?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은 서로 충돌하는가? 실질적인 차원에서 사고와 표현의 통일장의 구성은 비현실적인 것인가?

21) 지금까지 교육 현장에서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간의 차이점을 강조해 왔지만 읽기와 쓰기 모두가 의미구성의 과정이자 독자와 텍스트 사이의 상호작용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최근의 국어 교육에서는 언어 행위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각 기능 간의 통합적 교육프로그램을 제기하고 있다. 이재승, 앞의 책, pp.401~402.

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답하기 위해 비판적사고가 사고의 방법론에 해당하는 것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비판적사고 프로그램은 사고의 방법에 관한 것이지 독립된 영역으로 구분되는 사고가 아니다. 그것은 논리학도 철학도 아니고 인간의 사고에 방법과 방향을 부여해주는 장치에 해당하는 점이다. 따라서 그것은 사고가 작동하는 모든 단계 모든 순간에 방법적으로 개입될 수 있는 것으로서, 독자적이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분과 영역이 될 수 없다.

이 점은 그것이 글쓰기의 매 단계에서 자동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주제를 설정할 때 자신의 주장에 관해 적절함이나 중요성을 성찰한다거나, 전제를 마련할 때 역시 적절성, 중요성, 논리성을 성찰하는 일은 비판적 사고의 훈련을 통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현안문제를 제기할 때나 이를 풀기 위한 개념과 자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비판적 사고는 충분히 개입할 수 있다. 비판적사고 훈련을 받았을 경우 학생들은 문제는 분명해야 하고 개념은 정확해야 하며 자료는 타당하고 명료해야 한다는 기준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비판적 사고는 자신의 주장이 어떤 관점에 있는 것인지, 편협한 것은 아닌지, 심층적 사유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반성케 함으로써 주장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판적 사고를 적용하여 글의 목적과 문제와 주장을 결정하였고 이를 논증하기 위한 전제 마련과 자료 선정에까지 이르렀다면²²⁾ 이를 바탕으로

22) 글쓰기의 절차에서 일련의 수집된 자료는 정리의 과정을 거치게 마련이다. 자료의 정리는 내용을 숙지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지만 집필 시 인용이나 논거 제시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비판적 사고는 이러한 자료를 정리하는 단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자료의 핵심 내용은 자료에 나타난 주장과 전제를 중심으로 요약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료 정리는 요약에서 그치지 않는다. 정리자는 주어진 자료의 내용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바탕으로 찬평을 덧붙여야 하는데, 이때 논증적, 분석적, 변증적 차원에서의 비판적사고의 요소들이 활용될 수 있다.

개요작성으로 나아갈 것이다. 개요작성은 자신이 제기한 현안의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방향에서 구성될 수 있는바, 이 속에서 독자와의 원활한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맥락'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개요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하고 명료한 정보가 제시될 수 있도록, 전제와 결론 사이에 논리적인 추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도되어야 한다. 개요작성의 과정 역시 사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은 이 과정에 비판적사고가 개입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즉 비판적 사고는 사고가 이루어지는 모든 순간에 개입되어 사고를 다각도로 확장시키는 사고활동이 된다. 훈련된 비판적 사고는 사고가 이루어지는 모든 지점에 들어가 사고를 나선형으로 확장시키는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다. 특히 글쓰기는 집필 전(前)단계는 물론이고 집필단계에서도 끊임없이 사고가 이루어지는 활동의 장이다. 그런 점에서 비판적 사고의 훈련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은 보다 반성적이고 다각적인 사유에 의해 이루어진 글일수록 더욱 설득력 있고 가치 있는 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처럼 비판적사고와 글쓰기는 서로 구분되어 존재할 수 없다. 비판적 사고 프로그램과 글쓰기 프로그램은 서로 상반되고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들은 씨실과 날실로 서로 교직하면서 글이라는 완성된 결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게 된다. 사고와 표현은 각각의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횡과 종을 누비면서 동시적으로 구현되는 것이다. 비판적사고 프로그램은 글쓰기를 통해 완성될 수 있고 글쓰기 역시 비판적 사고에 의해 완전해질 수 있는 관계가 그것인 셈이다.²³⁾

23) 준비된 전제와 결론을 바탕으로 추론이 이루어지는 글쓰기를 할 때 활용되는 유형에는 크게 연역 추론과 귀납추론이 있다. 이 두 가지 추론은 전제와 결론 사이의 관계 및 논리의 전개 방법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전통적으로 글쓰기에서 활용되고 있다.

4. 결론

어떠한 사실이나 현상에 관에 진위와 가치여부를 따지면서 사고한다는 점에서 비판적 사고는 정보화 사회의 필수적인 사고 방법이 된다. 정보가 홍수처럼 범람하는 이 시대에 올바른 정보와 그른 정보를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은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에 의해 서구에서는 이를 프로그래밍화하여 교육에 도입하고 있다. 9요소-9기준으로 체계화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는 그러나 국어 교육의 목적 및 본질과 일치하면서도 그 도식성에 의해 국어 교육 영역에서 경원시된 것이 사실이다. 또한 비판적 사고 프로그램은 글쓰기 프로그램과 서로 상충한다는 견해에 의해 사고의 영역으로 국한된 채 소개되어 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비판적 사고는 사고의 기본적인 유형이자 국어 교육의 과정중심적, 구성주의적 성격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사고력 함양이라는 국어 교육의 실질적 목표 실현을 위한 일 방법을 제공한다. 프로그램화된 비판적 사고를 학습하고 훈련할 경우 우리는 어떤 사태에 대해 보다 체계성을 가

한편 Stephen Tolmin은 비판적 사고를 적용한 논리로서 실용논리 6단논법을 제안하고 있다. 데이터-이유(이유 논증)-결론-반론-반박(재검토)-결론강조(결론수정)의 6단계로 이루어지는 이 논법은 전통적 추론법이 형식논리적인 데 비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고의 유형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착안되었다. 실용논리라는 명칭을 사용한 까닭도 이것이 지니는 현실적 사고 유형에 기인한다. 이는 자신의 주장을 제기함에 있어 먼저 자료를 통한 논거를 제시하고, 이 논거가 왜 중요한지를 밝힘으로써 논의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나아가 가능한 반론들에 대해 고려하여 이를 중심으로 논의를 심화시키면서 결론으로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논의들은 제기될 수 있는 반론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논거에 대해서조차도 성찰적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비판적 사고가 적용된 논법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구체적인 논의 과정에서 행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의 방법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실제로 본고의 2장 2절은 톨민의 6단 논법을 적용하여 논의를 전개하였음을 밝혀둔다. 톨민의 6단 논법에 관해서는 포항공대교양학부, 『언어사고력 향상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교육개발 연구보고서 제1집, 1994 참고.

지고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비판적 사고는 시사적인 문제에서부터 다양한 영역의 텍스트 및 현상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전 영역에서 요구되는 사고의 태도이자 방법인 것이다.

이 점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곧 국어 및 글쓰기 교육이다. 비판적 사고는 다양한 텍스트를 통해 글읽기 연습이 가능하고, 또한 정보를 생산하게 되는 글쓰기 교육에서 효과적으로 적용, 활용될 수 있다. 비판적 사고는 읽기와 쓰기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글쓰기교육에서 활용될 때 더욱 큰 의미를 발휘할 수 있다. 읽기 자료를 통해 비판적 사고를 훈련했을 경우 글쓰기는 더욱 성찰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 구조로 이루어질 수 있다. 글쓰기는 비판적 사고를 적용함으로써 정보화 사회에서 유용한 설득적이고 타당한 글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점이다.

비판적 사고는 단지 사고력을 형성하고 글쓰기 능력을 향상하는 데 그 유용성이 그치지 않는다. 이를 훈련하는 과정은 학생들로 하여금 특정한 성격을 형성하도록 돕기 때문이다. 비판적 사고는 사태에 대해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게 함으로써 보다 주체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인간형을 양성하는 데 기여한다. 뿐만 아니라 이 속에서 주체들은 공동체의 공동의 가치에 대해 토론하고 고민하게 됨에 따라 궁극적으로 바르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얻게 된다.

【참고문헌】

- 김영정, 『비판적 사고의 9요소와 9기준』, 『토목』 53권 11호, 2005. 11, pp.217~225.
——, 『사고력 : 이론, 개발과 수업』, 교육과학사, 1998, pp.1~414.
김영채 · 박권생, 『사고력 교육을 위한 학습전략』, 교육과학사, 1992, pp.7~218.
박은진 · 김희정, 『비판적 사고를 위한 논리』, 아카넷, 2004, pp.17~499.
박현이 외, 『글쓰기 교육과 문학적 글쓰기』, 푸른사상, 2011, pp.18~367.
이재승, 『국어 교육의 원리와 방법』, 박이정, 1997, pp.11~476.
이좌용 · 홍지호, 『비판적 사고』, 성균관대출판부, 2009, pp.9~318.
정기철, 『읽기 교육의 이론과 실제』, 역락, 2000, pp.3~728.
포항공대교양부, 『언어사고력 향상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교육개발연구보고서 제1집, 1994, pp.1~88.
Fisher, Alec, 최원배 역, 『피셔의 비판적 사고』, 서광사, 2010, pp.13~229.
Kaufman, Walther, 이은정 역, 『인문학의 미래』, 동녘, 2011, pp.21~369.
Lodge, David, 윤지관 역, 『20세기 문학비평』, 까치, 1984, pp.11~413.
Paul, Richard, 원만희 역, 『왜 비판적으로 사고해야 하는가』, 궁리, 2008, pp.17~169.
Williams, Joseph M. & Gregory Columb, 윤영삼 역, 『논증의 탄생』, 홍문관, 2007.

Abstract

The Research of the Usefulness of Critical Thinking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Kim, Yun-jeong

In the information-center society, people have to produce their own information and distinguish between good information and bad information. For these goal, the most important thing is critical thinking. Therefore in writing education we should emphasize critical thinking.

Richard Paul created a critical thinking program which can be applied to daily life. That is '9 elements & 9 criterion'. It includes 'conclusion', 'presupposition', 'implication', 'question at issue', concept, 'information', 'purpose', 'point of view', 'context' as a 9 elements and as a 9 criterion, 'relevance', 'importance', 'logicalness', 'clarity', 'accuracy', 'precision', 'breadth', 'sufficiency', 'depth'. This program is very useful, not only for daily life but also for writing.

To apply this critical thinking program to writing education, we should find out proper reading materials with which students can practice critical thinking. And in the regard of solving the problem, student apply critical thinking to writing.

Key words : college mother-language, writing, critical-thinking, reading-source, community, information-production, thinking-faculty

김윤정

소속 : 강릉원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동 주공아파트 104동 302호

전화번호 : 033-640-2108, 010-9377-4906

전자우편 : 63yjk@hanmail.net

이 논문은 2013년 2월 28일 투고되어
2013년 4월 5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3년 4월 23일 게재 확정됨.